



교육연합신문



2026년 10월 21일 (수) 제453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경기교육청-종교계, 상생협력 벽깨기 ▶6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10월 15일 도 교육청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 3개 종단 대표와 '상생협력 벽깨기'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탐방-부산 남성초등학교 ▶8-9면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며,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교육 역시 지식 전달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부산 사상구, 교육기관과 협력 강화 ▶11면

부산 사상구가 부산시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을 잇달아 만나 지역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상구는 지난 9월 21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부산시 교육감 및 관계자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김문수 의원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 강화”

문항거래 징계 176명 중 115명 이의 제기... 해임·정직 등 중징계는 19명

사교육업체 등에 시험문항을 판매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사진·전남 순천갑)이 지난 10월 7일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7일 기준 문항거래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176명이었다. 이 가운데 115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전체의 65.3%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40명 ▲감봉 117명 ▲정직 15명 ▲강등 1명 ▲해임 3명이었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57명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고,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는 19명에 그쳤다. 교육부가 올해 3월까지 집계한 징계



가운데 79명(68.7%)은 '연기 신청' 상태였다. 결정이 완료되거나 절차가 종결된 인원은 22명(19.1%), 심사 중인 인원은 14명(12.2%)이다. 전체 징계 교원 176명을 기준으로 해도 연기 신청자는 44.9%에 달한다. 징계 이후 소청절차의 장기화 여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북부 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등과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문항거

래로 얻은 수입은 총 212억 9000만 원 규모였다. 일부 교원은 수능 출제 또는 EBS 교재 집필 경험에 있었고, 사교육업체의 문항 제작팀에 직접 참여하거나 다른 현직 교사를 섭외하는 등 조직적인 문항 공급에 참여한 사례도 드러났다.

문항을 구매한 사교육업체나 강사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3월 사교육업체나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문항거래 관련 징계와 교원소청 현황을 공개하고 교육부에 ▲중대 사교육업체 등과 문항을 거래한 경징계 사건의 적정성 재점검 ▲

교원소청 연기사유와 처리기간 점검 ▲사교육업체·강사의 문항 부정거래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협조 ▲올해 안에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은 시험문제 하나와 1점 차이로 등급과 진학 결과가 달라지는데, 교사가 시험 문항을 사교육시장에 판매한 행위를 단순한 관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를 받은 교원 3명 중 2명꼴로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 청구자의 약 70%가 심사 연기를 신청하고 있는 만큼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문항거래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전남광주교육청-구글,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협력

AI Education Platform 활용 양방향 수업·AI 윤리교육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0월 6일 광주청사 상황실에서 글로벌 IT 기업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 학습도구 플랫폼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과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25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협력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김대중 교육감, 구글 포 에듀케이션 동북아시아지역 총괄 소피 배(Sophy Bae) 등이 참석해 AI 기반 학생 맞춤형 수업과 교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AI Education Platform 내 구글 교육 서비스를 활용한 교사·학생 간 양방향 수업



지원 ▲올바른 AI 활용을 위한 윤리교육 프로그램 도입 ▲글로벌 인재 역량 개발 지원 등이다. 두 기관은 이를 중심으로 교원과 학생의 AI·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피 배 구글 포 에듀케이션 동북아시아 총괄은 “구글의 앞선 교육 도구와 생성형 AI 기술이 전남 광주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창의적인 배움의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

사 모두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AI와 에듀테크는 단순한 교육 지원 도구를 넘어 학생의 미래 성장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다”며,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시도 재검토해야”

도성훈 교육감,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교육정책 간담회 논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월 7일 오전 여의도에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교육재정 안정화와 인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입법·예산 과제를 긴밀히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직선 5기 인천 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마

련됐다. 간담회에는 허종식, 송영길, 김교흥, 유동수, 맹성규, 이용우, 김남준, 모경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택상 지역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반드시 수반 돼야 한다”라며, 현행 내 국세의 20.79%로 연동돼 있는 ‘지

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편하려는 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가올 미래교육 대응에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함께 자리한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국회의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

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의원들은 ▲지역별 현안 수요에 따른 학교 신설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노후화된 학교 시설 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모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이중언어, 우즈베키스탄 친구들과 마음 잇는다

광양중진초, 韓·우즈베키스탄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 성료

전남광주 광양중진초등학교(교장 박윤자)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일원에서 ‘한국-우즈베키스탄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 교육 교류활동을 실행했다.

이번 행사는 6학년 학생 및 교원 12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중언어를 활용해 교류학교 학생들과 소통하고,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타슈켄트의 교류학교인 Asian Development School(이하 ADS)을 방문했다. 첫날 환영회에서는

양교 학생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각자 준비한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었다. 광양중진초 학생들은 그동안 익힌 우즈베크어로 자신을 소개해 현지 학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대면 교류수업에서는 광양중진초 학생들이 한국 전통놀이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됐다. 학생들은 ADS 친구들과 팽이치기, 딱지치기, 윷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함께 하며 급제 가까워졌다.

서옥란 기자 2580news@daum.net



"학생을 위한 공간, 교육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선택"

월드퍼니처가 함께합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BENEFIT 02	BENEFIT 03
연계고용부담금	총액 계약	수의 계약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조달청과 수의시담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제도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도

**WORLD FURNITURE**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광주 직업계고 학생 113명, 산업기사 자격 취득

과정평가형 7개 과정 평균 합격률 73.4%… 학교별 실무교육 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등 광주지역 4개 직업계고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7개 과정에 응시해 154명 중 113명이 합격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평균 합격률은 73.4%다.

이번 성과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쌓은 이론과 실무 역량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는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공사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에서 40명 중 33명이 합격해 82.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기공사

산업기사는 전기설비 시공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또, 전자산업기사, 자동화설비 산업기사 등 3개 과정에서 70명이 응시해 62명이 합격하며 88.6%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광주형 마이스터고인 광주공고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발전설비과 학생 15명은 전남·광주지역 직업계고 중 처음으로 설비보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에 응시해 전원이 합격했다. AI반도체과에서도 전자산업기사에 17명이 응시해 15명이 합격하는 등 2개 과정에서 32명 중 30명이 합격해 93.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광주공고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자격 취득 성과를 통해 산업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의 성과를 확인했다.

광주전자공고는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에서 16명의 합격자를, 동일미래과학고는 자동화설비산업기사 과정에서 5명의 합격자를 각각 배출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교육부 성과와 바탕으로 2027년 교육부 '자격특화 특성화고'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연계한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실습환경 개선과 교원 전문성 강화, 기업 연계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 계획에 대응해 반도체 분야 학과 재구조화와 전남광주형 글로벌 마이스터고 확대도 추진한다.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성장·정주하는 '교육-지산지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형지영 진로진학과장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학생들의 열정과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해 힘쓴 교사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며, "산업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이 좋은 일자리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직업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다(多)가치 완성하는 인천직업교육

인천직업교육박람회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 동시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제1·2홀에서 '2026 인천직업교육박람회'와 '2026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꿈을 잇다, 미래를 열다. 다(多)가치 완성하는 인천직업교육'을 슬로건으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진로·직업

체험과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 전시관에서는 인천지역 28개 직업계고가 학교별 교육과정을 전시·시연하고 학과와 졸업 후 진로를 안내했다.

직업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AI) 디자인 ▲드론축구 ▲가상·증강현실(VR·AR) ▲항공 조종 ▲미래에너지 신기술 ▲뷰티 ▲조리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별무대판에서는 밴드, 댄스, 태권도, 난타, 치어리딩, 패션쇼 등 학생 공연이 펼쳐졌으며, 16일 오전에는 최태성 강사가 '세상을 바꾸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교육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ays@

社 說

과도한 N수 열풍, 학벌주의 해법 없이는 교육 공멸을 막을 수 없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는 N수생 급증과 사교육비 폭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올해 수능 점수자 중 N수생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 2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수능 여파와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더 나은 대학을 향해 재도전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가게 경제를 파탄 내는 사교육비와 N수 현상은 결국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삶의 기회를 좌우하는 왜곡된 구조에서 비롯된다.

N수 생활에는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전체 N수 사교육비 규모만 해도 1주년 기준 3조 원을 웃돈다. 이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곧 학생의 재도전 기회를 결정하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

고 있다. 정작 수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임에도 이들이 학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학벌이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 직결되는 한국 특유의 구조적 병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N수생 증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자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이라고 반문한다. 하지만 N수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나 역량 발전을 위한 투자로만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한 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능 난이도 조절이나 입시 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된 승자독식 구조의 폐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진단이다. 현실의 N수 경쟁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는커녕,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유리한 부모 찬스의 장으로 변질되어 있다. 게다가 10명 중 7명이 실패의 고통을 겪고, 고3 재학생들까지 가중된 부담으로 인해 원치 않는 N수로 내몰리는 상황은 교육이 사회적 통합이 아닌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입시 제도의 지엽적 수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벌 중심의 사회적 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어느 대학 출신인지가 평생의 간판이 되는 학벌주의 타파와 일자리 간의 임금·근로조건 격차 해소가 동반되지 않는 한, N수생 행렬을 막아 세울 방법은 없다.

교육은 청년들을 무한 경쟁의 나락으로 내몰고 가계의 등을 휘게 하는 소모전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입시 지옥의 악순환을 끊어낼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시작할 때다.

배움의 열정으로 피워낸 감동의 결실

담양도서관 어르신 3명,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담양도서관(관장 김경혜)은 '2026년 제15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 공모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늘배움 한글교실' 수강생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배만재·장복순 어르신은 10월 1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평생학습박람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수상은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꾸준히 한글을 익히고,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그동안의 배움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담양도서관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늘배움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문해교육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해 학습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경혜 관장은 "배움을 향한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감 있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2580news@daum.net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유의 한국사' 발간

한국 사상이 궤적과 철학적 개념 탐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조식(曹植, 1501~1572), 이이(李珥, 1536~1584), 윤휴(尹鑄, 1617~1680)의 삶과 사상을 각각 다룬 조식, 이이, 윤휴를 발간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세 책은 한국 사상가의 궤적과 철학적 개념을 탐구해 우리 안에 잠재한 사유와 문화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기획한 <사유의 한국사> 교양총서 시리즈 중 하나다.

세 사람은 모두 당대의 현실과 치열하게 맞서며 유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학자였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시대와 학문적 지향,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기 않았다.

사회가 거듭된 16세기에 살았던 조식은 배운 도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하학인사(下學人事)'를 중시했다. 한 세대 뒤의 이이는 성리학의 철학적 탐구를 현실 정치와 연결해 시대의 제도와 폐단을 고치는 '경장(更張)'을 주장했다.

병자호란 이후의 17세기를 살아간 윤휴는 주희의 해석에 머물지 않고 경전을 새롭게 읽으며 부국강병과 국가 개혁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모색했다. 이들의 선구적 계는 조선 유학이 전개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조식과 이이가 활동한 16세기는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학자마다 서로 다른 학문적 개성을 드러내던 시기였다. 조식은 실천과 경제

를 중시했고, 이이는 이기론과 심성론을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경제론과 연결했다.

17세기에 이르면 이이의 학문은 후학들을 통해 기호학파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와 다른 학문적 원형에서 성장한 윤휴는 주자학의 권위가 강해진 시대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며 또 다른 길을 모색했다.

세 사람은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무관한 인물은 아니다. 조식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이이는 조식에 대한 평가를 직접 남겼다. 당시 조식을 '도학군자'로 보는 평가와 달리 이이는 그의 학문적 성취와 경제론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일민(逸民)'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성일·송시열·이익·곽종석 등 여러 학자는 조식을 도학자로 평가했다.

<사유의 한국사> 시리즈의 '조식'·'이이'·'윤휴'는 각 인물의 생애와 저술, 학문과 정치적 실천, 후대의 계승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세 권을 나란히 읽는 것은 16세기에서 17세기로 이어지는 조선 유학의 흐름을 따라가는 동시에, 하나의 사상적 전통 안에서도 시대와 현실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질문과 답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병선 기자 kbs@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터 찾는다

인천노동권익센터, ‘청년 데이터로 본 인천 청년 노동자의 삶’ 정책포럼

인천노동권익센터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5층 창업다락에서 ‘청년 데이터로 본 인천 청년 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천 청년의 일자리와 노동 현실을 데이터와 청년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 청년이 체감하는 일자리의 질과 향후 필요한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의 ‘청년 데이터로 본 인천 청년 노동자의 삶’ 발제, 청년 패널 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문가 발제를 통해 인천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뒤, 청년 패널들이 취업과 근무, 이직 등 실제 일자리 경험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과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 청년에게 필요한 노동·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전문가의 데이터 분석과 청년 당사자의 실제 경험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통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청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청년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참여 대상은 인천 청년 및 인천

시민으로,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와 주최하고 인천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후원하며, (주)채움에이치알디가 행사 운영을 맡는다.

행사 중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홍보도 함께 진행되며, 참석자에게는 기념품과 다과가 제공된다.

인천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이

번 정책포럼을 통해 인천 청년들이 실제 일자리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향후 지역 청년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 (<https://forms.gle/LgTp7GYFNcnuQ6S19>)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노동권익센터 032-831-8601, 070-4406-9099로 문의하면 된다.

양은섭 기자 ays@

전남광주교육청, 학생 주도 ‘2030교실’ 수업 나눔

11월 6일까지 신규 선정 119개 교실 참여, 놀이·탐구 수업 등 선보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유·초·중등 2030교실을 공개하고, 교원 간 수업 나눔을 진행한다.

이번 수업 나눔에는 전남 지역에 운영 중인 총 252개 2030교실 중 올해 신규 선정된 119개의 교실이 참여한다. 마을의 자연을 놀이로 표현하는 유아 공동수업부터 세계의 기후와 삶을 탐구하는 초등 글로벌 수업, 지역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중등 프로젝트 수업까지 다양한 사례를 선보인다.

이번 수업 나눔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수업의 변화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교실은 단순한 교실환경 개선을 넘어, 시·공간 제한 없는 수업 등 학생 중심의 수업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정책이다. 원격 화상 시스템, 실시간 언어 번역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 학생의 주도성과 참여를 높이는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유아 2030교실에서는 인근 소규모 유치원들이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선보인다. 마을의 자연을 탐색하며 직접 활용한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몸으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움직임을 연결해 하



나의 장면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는 유아의 경험을 놀이로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유치원 간 공간의 제약을 넘어 또래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배움을 넓혀가는 유아·놀이 중심 수업의 사례를 보여준다.

초등 2030교실에서는 지역의 자연에서 출발해 세계의 기후와 생활을 탐구하는 글로벌(Glocal) 수업이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교과서와 AI 자료를 활용해 열대·건조 기후의 특징을 살펴보고, 화상으로 연결된 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와나 등의 교사들에게 현지의 생활 모습을 직접 질문한다.

이 과정에서 실시간 통역·번역 도구를 활용해 소통하며, 기후와 생활의 관계를 스스로 탐구한다. 이후 배운 내용을 환경 그림책과 전자책으로 제작해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과 공유하고, 기후 선언문을 통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간다.

중등 2030교실에서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3개의 작은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함께 결정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정책의 필요성·실현 가능성을 토의를 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다른 학교 학생들의 질문과 의견을 반영하며 선택의 근거를 보완해 간다.

문제 인식부터 정책 비교·검토, 우선순위 결정과 성찰까지의 과정을 통해 협력적 의사결정을 경험하고, 지역 발전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순천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직무연수 운영, 미래교육 리더십 강화



순천교육지원청은 10월 14일 순천 마리나컨벤션 2층에서 순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을 대상으로 ‘2026.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AI와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 역량을 높여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ChatGPT·Gemini·Claude·Perplexity 등 주요 생성형 AI의 특징과 활용 ▲생성형 AI를 활용한 생활 및 업무 지원 ▲문서 기반 AI 활용 ▲AI 이미지 생성 ▲AI 저작권과 AI 기본법 등 학교 관리자가 알아야 할 AI·디지털 활용 내용을 실습 중심으로 다뤘다.

김신규 교육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은 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도구인 만큼 학교 관리자가 먼저 그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AI·디지털 기술을 교육과 학교 경영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미

래교육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AI·에듀테크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지원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김 홍 제 의 목 요 칼 럼

부강이 열풍과 진정한 위로

몸길이 약 3미터 암컷 흑상어 한 마리가 9월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로 들어왔다. 그 이후 이 상어는 시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9월 19일부터 10월 9일 오후 6시까지 이 상어를 보기 위해 친수공원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120만 명을 넘어섰다.

열풍이다. 이 상어는 북항에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부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부산시는 부강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왜 상어 한 마리를 향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뉴스 내용을 보다 보면 부강이와 늑구 같은 야생동물의 모습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며 환호한다. 배우자나 노부모는 돌보지 않아도 반려동물에게는 극진하게 대하는 요즘 세대를 두고 있었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대중의 특별한 관심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화면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비극이 지 난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 폭력 앞에서 무너지는 약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건 디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기후 위기로 사라지는 생태계와 멸종의 벼랑에 선 야생동물도 있다. 현실 생활의 비루하고 비

“부강이에 대한 열광은 너무 복잡하고 지친 세상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에게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

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부강이에게 보내는 관심만큼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말 없는 야생동물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입장을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는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위로한다.

반면 인간은 다르다. 인간의 고통에는 원인과 책임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곳에 마음을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판단해야 하고 때로는 감정의 불편함을 느끼며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

부강이 뉴스와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가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무연고 사망자는 7,190명이라고 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53.4%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46.6%는 정부의 복지 수혜 대상이 될 정도의 가난에 놓이지는 않았는데도 무연고로 처리되었다. 작년에 전국에서 법적인 연고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있지만 무연고로 삶을 마친 이는 74.9%였다.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우리는 무연고 사망자가 누구인지 왜 무연고가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

이 없다.

현대인의 관심은 ‘깊이 생각해야 얻는 감동’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위로를 너무 쉽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위로는 귀여운 것을 바라보며 잠시 웃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자연을 바라보며 결국 다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부강이에 대한 열광은 너무 복잡하고 지친 세상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에게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불편하고 아픈 인간의 현실을 끝까지 바라보는 힘이다. 그런 힘에 교육이 한 줄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청진로융합교육원장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부산시의회, 부산연탄은행 ‘사랑 에너지 연탄나눔’ 봉사활동

강무길 의장 비롯 시의원·상임위원장·사무처 직원, 동구 매곡지서 사랑의 연탄 배달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강무길)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매곡지 일원에서 '2026년 사랑 에너지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개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랑의 연탄 1만 장을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의회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했으며, 강무길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과 시의원,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연탄 배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부산지역 기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선 부산시의회는 부산연탄은행의 23번째 겨울나기 시작을 함께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

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 **시의원·사무처 직원 한마음… 연탄 한 장에 담은 따뜻한 이웃사랑**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강무길 의장과 시의원, 사무처 직원들은 동구 매곡지 일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지게로 연탄을 직접 나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연탄을 전달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어려움을 살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탄은 여전히 일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겨울을 나기 위한 중요한 난방 수단이다. 특히 추위가 시작되면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연탄나눔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시의원들이 시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

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강무길 의장 "부산의 따뜻한 겨울, 시의회가 먼저 열겠다"**

강무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부산의 에너지 배려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의 문을 우리 시의회가 가장 먼저 열겠다”라며 이웃사랑 실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연탄 한 장 한 장에 담긴 정성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삶을 의정의 중심에 두고 일상 어려움까지 세심히 살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구의 경계를 넘어 부산시민 모두의 삶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 의정 활동으로 진행됐다.

■ **부산연탄은행 강정철 목사 "스물세**

번째 겨울, 연탄 한 장은 희망이자 사랑"

부산연탄은행 강정철 목사는 부산시의회의 연탄나눔 봉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23번째 이어온 연탄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강 목사는 “부산연탄은행의 23번째 겨울나기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스물세 번의 겨울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첫 연탄을 놓는 순간은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올해도 그 따뜻한 시작을 부산시의회가 함께해 주셨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강무길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과 시의원들께서 따뜻한 온기를 기다리는 에너지 배려 이웃들을 가장 먼저 찾아주셨다”며, “지역구의 경계를 넘어 부산의 모든 이웃을 내 지역구 주민처럼 품고,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참된 섬김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강 목사는 연탄 한 장이 가진 의

미를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연탄은 그저 검은 덩어리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희망이고 차가운 밤을 이겨내는 위로이며,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전하는 사랑의 증표”라고 표현했다. 또한, “연탄 한 장이 모여 23년의 역사가 됐다”며, “한 장의 연탄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손을 잡으며 작은 온기가 마침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연대의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돌아보면 한 번도 쉬운 겨울은 없었지만 수많은 따뜻한 손길 덕분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며, “2026년 스물세 번째 겨울에도 부산의 에너지 배려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동행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따뜻한 동행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2026년 겨울, 부산의 온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개원 100일 맞은 부산시의회, 민생 중심 현장 의정활동 강화**

한편, 지난 10월 13일 개원 100일을 맞은 부산시의회는 ‘오직, 시민행복! 오

직, 부산발전!’을 의정 기치로 내걸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 역사상 첫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의회 운영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사랑 에너지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연탄은행이 함께한 이날의 나눔은 연탄 1만 장이라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어려운 이웃의 겨울을 함께 책임지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스물세 번째 겨울을 맞은 부산연탄은행의 첫 연탄나눔 현장, 시의원들과 봉사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검은 연탄 한 장 한 장은 차가운 겨울을 앞둔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며, 부산의 새로운 나눔의 계절을 열었다.

황요규 기자 hog@

차성민 부산 연제구의회 의장 “사직야구장 재건축 약속 지켜야”

취임 100일 맞아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사직야구장 현 위치 재건축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촉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장은 10월 16일 부산 야구의 상징인 사직야구장의 현 위치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철도와 대규모 주거단지를 연계한 지하보행통로 및 복합 지하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차 의장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북항 둑구장 건립 구상과 관련해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정책적 연속성과 시민 신뢰가 존중돼야 한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차 의장은 사직야구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부산시민과 야구팬들의 추억이 깃든 상징적인 공간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 시정에서 추진해 온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이 새로운 둑구장 건립 구상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 의장은 “시정이 바뀌더라도 시민과 약속한 주요 공공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다른 지역의 새로운 둑구장 건립으로 차질을 빚는다면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공공시설 정책은 정치적 판단보다 시민의 편익과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차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장

의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단순한 체육시설 개선사업이 아닌 교통·주거·상권을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발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4.470세대 규모의 연제구 레이카운티 아파트 일대를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이를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한 복합 지하상권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제시했다.

차 의장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권을 참고 사례로 들며, 대중교통 이용객과 지역 주민, 야구장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상업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인구를 지역상권으로 유입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장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사직야구장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정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항 둑구장 건립 구상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과 사업 타당성, 기존 사직야구장과의 기능 분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장은 “사직야구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시설로 재건축하고, 주변 교통과 상권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부산시가 시민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 의장은 끝으로 “연제구의 발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주변 상권 활성화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지역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말보다 실천으로 보답하는 연제구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차 의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존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장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사직야구장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정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항 둑구장 건립 구상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과 사업 타당성, 기존 사직야구장과의 기능 분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장은 “사직야구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시설로 재건축하고, 주변 교통과 상권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부산시가 시민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 의장은 끝으로 “연제구의 발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주변 상권 활성화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지역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말보다 실천으로 보답하는 연제구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차 의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존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황요규 기자 hog@

한국 청소년 사진제·AI이미지콘테스트 작품 공모

10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 및 일반 국민 대상 공모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양재 aT센터서 수상작 선보여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전)가 사진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사진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제4회 한국 청소년 사진제’ 및 ‘2026 AI이미지콘테스트’ 참가 작품을 공모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특별시 2026년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제11회 대한민국사진축전’과 연계해 개최된다. 수상작은 오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축전 행사 현장에서 특별 전시된다. 시상식은 전시 마지막 날인 12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제4회 한국 청소년 사진제는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초·중등부와 고등부로 구분해 작품을 접수한다.

일상 속에서 발견한 다양한 순간과 자신만의 시선을 자유롭게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시상으로는 초·중등부 대상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상장과 상금 50만 원, 고등부 대상에 상장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점에는 서울특별시의회장 상장과 상금 각 30만 원이 수여된다. 이 밖에도 우수상, 특선, 입선 등 다양한 시상이 마련돼 있다.

함께 진행되는 2026 AI이미지콘테스트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과 사진예술을 융합한 창의적인 작

품을 공모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각예술의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AI이미지콘테스트는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5점, 입선 50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의회장 상장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두 공모전 모두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출품료는 무료다. 참가자는 긴 변 2000픽셀 이상의 JPG 파일을 1인당 최대 3점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https://contest.pask.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제11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 내 별도 전시 공간에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제11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은 서울특별시의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사진예술의 대중화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로 운영된다. 청소년 사진작품부터 AI 기반 창작 이미지까지 다양한 시각예술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진예술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통 사진예술과 AI 창작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유연 기자 lyy@

경기교육청, 불교·개신교·천주교와 상생 협약

안민석 교육감 “종교시설도 배움터로”... 합창·명상·봉사로 RAS 교육 영역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10월 15일 도교육청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 3개 종단 대표와 ‘상생협력 벽깨기’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9일 시군과 손잡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문을 연 데 이어, 이번에는 종교계로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과 종교계는 ▲합창·오케스트라로 RAS(독서·예술·신체) 교육 영역 확대 ▲명상과 봉사를 통한 마음 교육 ▲종교시설을 배움터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한다.

협약서에는 학생의 종교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조항도 따로 담았다. 종교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덜기 위해서다.



안 교육감은 “마을에는 시청과 군청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옆에 절이 있고 교회와 있고 성당이 있다”며 “이번 협약은 각 종교가 오래 지켜 온 고귀한 가치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이름은 달라도 아이에게 바라는 마음은 같았고, 성직자의 마음과 교직자의 마음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협약서에 담긴 마음이 교실까지 스며들게 하는 일은 저와 우리 교육청의 몫”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계와 종교계가 화합과 상생으로 일구는 새로운 경기교육 대전환을 성공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는 불교계에서 용주사 주지 성호 스님과 종필 스님,

보통사 주지 호산 스님이 참석했다. 개신교계에서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김영진 대표회장(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최광수 사무국장과 박병철·고경환·오봉근 목사가 함께했다. 천주교계에서는 수원교구장 대리 박진상 주교와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은형 신부가 자리했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남부유아체험교육원, 해아뜰 튼튼 놀이터 운영

석광우 원장 “유아 성장 돕는 질 높은 문예체 체험 프로그램 지속 지원”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석광우)은 10일 경기도 내 3~5세 유아와 가족 120명을 초청해 ‘해아뜰 튼튼 놀이터’를 운영했다.

이번 가족체험은 독서(Reading)·예술(Arts)·신체(Sports) 활동을 조화롭게 있는 ‘경기유아 PLAY-RAS’ 정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똘똘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

쪽’을 주제로 유아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통합 체험으로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채소 나라에 간 병구’ 인형극&마술쇼 ▲나만의 양치컵 디자인하기 ▲모형 빗줄놀이(야외체험활동) 등이다. 생각과 감성, 몸의 힘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는 활동으로 운영했다. 교육원은 이날 ‘튼튼 놀이터’를

시작으로 계절별 체험을 이어간다. 오는 11월 7일에는 지구 지킴이를 주제로 한 ‘환경 놀이터’를, 12월 5일에는 하얀 겨울을 채우는 ‘겨울 놀이터’를 차례로 연다.

석광우 원장은 “이번 해아뜰 튼튼 놀이터가 유아들이 부모와 눈을 맞추고 마음껏 놀이하며 생각·감성·몸의 힘이 균형 있게 성장하

“오정초 교사 불기소, 정당한 생활지도 지켰다”

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 맞아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단장 안민석 교육감)은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이번 결정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행위는 교육의 본질인데,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장기간 불안에 시달리면 교실 분위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상기시켰다는 입장에서 함께 밝혔다.

다만 결정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판단을 거치는 구조여서, 올해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됐다. 제도적 한계로 판단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 교사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교권보호단은 출범 이후 이 사안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아 대응해 왔다. 교육감의 학부고 모발 조치, 피해 교사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을 연계하는 등 교사가 악성 민원과 부당한 고소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 제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도

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법률 지원, 관계 기관과의 연계, 제도 개선을 강화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단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결을 지켰다는 입장에서 밝혔다.

한편,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맞아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사안 대응 현황, 향후 교권보호 정책과 활동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

안민석 교육감 “김포 과밀·특수학급 학생 중심 해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 열고 학부모·학교장 참석 교육 현안·의견 청취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월 8일 김포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모와 학교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 등 200여 명

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해소 ▲통합로 안전 ▲특수학급 증설 ▲원거리 통학 문제 ▲학교부정소년

교육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안민석 교육감은 “과밀학급과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학생을 중

심에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포교육지원청 권성규 교육장은 중학교 배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도 학교별 여건을 면밀히 살펴 지자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통학버스 노선 확대 방안과 청소년재단을 통한 학교부정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교육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인천해원고, 도산서원 선비문화 교육

2학년 학생 대상 책임 있는 시민·생활예절 배워

인천해원고등학교(교장 박성우)는 10월 16일 오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감사(지도위원) 11명이 ‘선비문화 공부’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선비수련 교육과정’의 하나로, 1교시와 2교시에 걸쳐 ‘책임 있는 시민’, ‘생활예절’ 과정이 운영됐다.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퇴계 이항 선생의 학문과 삶이 깃든 도산서원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수련원은 ‘선비정신을 체험하고 실천을 다짐하는’것을 지향하며, 학교급별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 고등학교 과정에는 ‘바른 인성과 지혜’라는 교재가 마련돼 있다. 수련원에서 이뤄지는 입교형 수련뿐 아니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한다.

인천해원고는 학생들이 선비정신을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2학년 10개 학급 289명 전체가 참여했으며, 1교시(08:50~09:40)와 2교시

(09:50~10:40)에 학급별로 두 과정을 나눠 듣도록 편성했다.

교육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고등학교 과정 교재 ‘바른 인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한 내용도 인성교육 내용에 반영하도록 했고, 학생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정해 운영했다.

박성우 교장은 “해원고 학생들이 선비교육을 통해 인성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생활 속 예절을 배우는 이번 시간이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및 행정지원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

전남 구례간문 초등학교, 담양창평중학교 외

복지시설 / 경로당

서늘강동 종합사회복지관, 중평군 신동리 경로당

지자체 / 관공서

단양군청 산림복지과, 진해 군항제 외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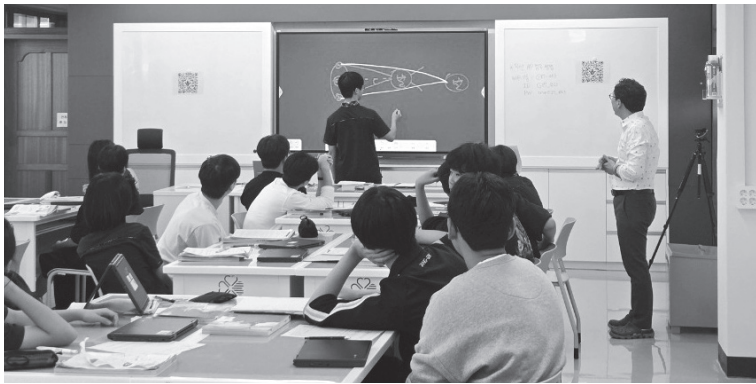
“질문·AI·첨단 과학실로 여는 시흥 미래교육”

시흥 장곡중, 미래형 과학실·AI디지털 선도학교·질문하는 학교 공개수업

경기도 시흥 장곡중학교(교장 임소영)는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첨단 교육 환경과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이 결합된 수학과, 영어과, 과학과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장곡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AI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에 이어, 최근 ▲미래형 과학실(확장형) 구축을 완료하며 시흥 지역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공개수업에서는 ‘질문하는 학교’의 취지에 걸맞게, 학생들이 스스로 핵심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주도적인 탐구 과정이 돋보였다. 1인 1스마트기기와 AI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 학습 데이터를 능숙하게 수집·분석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AI디지털 선도학교’다운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났다.

특히, 새롭게 구축된 미래형 과학실’에서 진행된 수업은 경기도 교육청의 ‘2026 경기과학 탐구맛집 2.0’방향에 발맞추어 공간·도구·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탐구 중심 수업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교사들과 수업 사례를 나누는 ‘과학교사 성장 마당’으로서

의 역할도 겸했다.

무엇보다 이번 수업은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시흥과학고’에 첫 입학생(고1)으로 진학하게 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돼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장곡중학교의 미래형 과학실 인포라와 AI 기반 탐구 수업은 학생들이 미래 과학 인재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조기에 함양하고,

향후 시흥과학고 진학으로 이어지는 지역 교육의 선순환 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개수업을 참관한 동료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은 “AI 에듀테크 기술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임소영 교장은 “우리 학교는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학습 공간, 그리고 첨단 과학실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공개수업을 통해 장곡중학교의 우수한 학생 주도형 교육 모델이 경기도 내 다른 학교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상민 기자 ssm@

소통 중심 건강한 직장 문화 정착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갑질 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자)은 9월 3일, 29일 2차례에 걸쳐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상호 존

중과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갑질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이

수로 대두된 갑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통 중심의 건강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청렴 및 안전 연수 일정과 연계해 관리자(교장, 행정실장 등)의 참여 효과를 극대화했다. 연수 등록 동선에 맞춰 어깨띠와 손

팻말을 활용한 대면 홍보로 갑질 근절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김선자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 현장 내 상호 존중 문화와 청렴 의식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청렴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동두천경찰서·유관기관 연계 ‘학교폭력·도박 ZERO, 폰 프리 스쿨’ 캠페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수)이 지난 10월 7일 동두천경찰서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폭력·도박 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주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협하는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언어폭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았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학생 주도 언어문화 개선 및 학교폭력·도박 예방 캠페인 ▲폰 프리 스쿨’ 정착과 RAS ON 교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시 등 유관기관 연계캠페인을 통한 ‘상생협력 벽개기’ 실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언어문화 개선 주간을 맞아 동두천경찰서 및 동두천시와 함께 올바른 언어 사



용과 사이버 폭력,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활동이 펼쳐졌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소통과 참여로 ‘폰 OFF & RAS ON’을 실천하는 ‘폰 프리 스쿨’ 정착을 강조하며 사이버 폭력 예방에 힘썼다. 이번 ‘폰 OFF & RAS ON’ 정책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강정수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학생자치회 주도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바른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벽개기’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조명하 의사 추모하며 독립운동 정신 되새겨

수원제일중 역사동아리 학생들, 국립서울현충원 순국 98주기 추모식 참석



경기도 수원제일중학교(교장 하양근) 역사동아리(지도교사 진성민) 학생들은 지난 10월 10일 토요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되는 ‘조명하 의사 순국 9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민형우)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독립운동가 조명하 의사의 순국을 기리는 행사이다. 조명하 의사는 1905년 황해도

송화군 출신으로서 1928년 5월 14일 타이완 타이중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이자 일본 육군 대장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를 척살했다. 의거 직후 붙잡힌 조명하 의사는 1928년 10월 10일 타이완 타이베이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돼 순국했다.

역사동아리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서 ▲조명하 의사의 독립운동을 배우고 ▲현충관의 조명하 의사 추모식에 참석하며 ▲현충원 내 조명하 의사 묘역에 참배 및 헌화

를 진행했다.

역사동아리 학생들은 조명하 의사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독립운동가의 삶을 돌아보며 이분들의 희생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됐음을 알게 됐다.

진성민 지도교사는 “타이완 타이중의 조명하 의사 의거 현장에 직접 가보았을 때 의사의 용기를 느끼고 가슴이 벅차올랐었다. 오늘 역사동아리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석해 그때 내가 느꼈던 조명하 의사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3학년 역사동아리 송승민 학생은 “조명하 의사는 조국의 자유·정의·평화를 찾기 위해 의거를 하겠다고 한다.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조명하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쟁취한 대한민국의 자유·정의·평화를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경기북부 교육격차 줄이고 교육의 질 높이겠다”

경기교육청, 고양·파주·김포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고양과 파주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별 교육 현안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며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눴다.

8일 오전 고양에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학교장, 민경선 고양시장,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교육격차 해소 ▲학교시설 개방 ▲원거리 통학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어 오후 파주에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학교장, 경기도의회 박은주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교육격차 해소 ▲소규모 학교 운영의 어려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교육감은 고양과 파주 두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경기북부를 제2부교



육감이 전담하여 교육행정을 추진하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지역에서 선출한 제2부교육감이 경기북부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의 벽개기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고양교육지원청 강현주 교육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지자체와 협력해 버스를 증차했으며,

내년에는 노선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정선아 교육장은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의 지일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은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교문현답’을 실천했으며, 오전 고양, 오후 파주에 이어 저녁에는 김포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학부모들과 소통을 진행했다.

신상민 기자 ssm@

PMZ

Pozzalan Mat Zone

향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졸란매트존입니다.

용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향균
포졸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우아르
강일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부산 남성초등학교, 삶과 세계를 연결하는 미래교육의 새 지평 연다

이광민 교장 “마을을 깊이 이해하는 아이가 더 넓은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

부산 남성초등학교



이광민 교장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며,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교육 역시 지식 전달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배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전환의 중심에서 부산 남성초등학교(교장 이광민)는 국가교육과정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철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학교가 위치한 부산 중구 원도심의 역사·문화·생활환경을 교육과정에 접목하는 새로운 배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탐구하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며, 스스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가정과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확장해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가를 넘어, 학생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과정으로 답을 찾아가는가에 있다.

남성초등학교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하거나 첨단 교육기술을 활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두고 있다.

교육연합신문은 ‘글로벌 미래교육 학교탐방’ 특별기획 첫 번째 학교로 부산 남성초등학교를 찾아 이광민 교장의 교육철학과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탐구활동, 미래교육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 이광민 교장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교육, 남성초등학교가 실천할 것”

“마을 골목길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훗날 세상을 품고 미래를 열어갈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산 남성초등학교 이광민 교장이 강조하는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일상의 경험에서 배움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역량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 교장은 “남성초의 탐구 교육은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학교 주변 중구 원도심에서 배운 탐구의 경험이 아이들의 각 가정과 거주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모습을 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교육과정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학교교육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학업 성취를 넘어 학생들의 삶과 사회를 연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늘날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일은 이전보다 쉬워졌지만,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며 타인과 협력해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가를 넘어, 학생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과정으로 답을 찾아가는가에 있다.

남성초등학교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학생을 배움의 능동적인 주체로 세우는 탐구 중심 교육을 실

천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이자 조력자로 참여하며, 학생들은 관찰과 조사, 토론과 협력, 성찰과 실천을 통해 자신만의 배움을 만들어 간다.

특히, 남성초등학교의 탐구교육은 학교 주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매일 지나치는 골목길과 전통시장, 역사적 공간에서 학습의 주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교과서 속 지식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험한다.

이는 학교교육의 범위를 교실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가정과 사회로 확대하려는 교육적 시도다. 이광민 교장이 강조하는 ‘마을을 깊이 아는 아이’는 단순히 지역의 역사와 지리를 잘 이해하는 학생이 아니다. 자신의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책임감과 실천력을 갖춘 학생을 의미한다. 남성초등학교의 교육은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시작해 세계를 향한 폭넓은 사고와 시민의식으로 발전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 국가교육과정과 IB 교육철학의 융합... 학생이 배움의 중심에 서다

남성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 바칼로레아(IB) 초등교육 프로그램(PYP)의 탐구 중심 교육철학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IB 교육철학의 중요한 특징은 학생들이 개별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와 지식을 연결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남성초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과 학교자율시간 등을 바탕으로 IB PYP의 초학문적 주제를 연계해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탐구 주제인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자신을 조직하



는 방법’ 등은 특정 교과의 범위를 넘어 사회·과학·국어·예술 등 다양한 학습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컨대 지역의 역사를 탐구하는 수업에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나 연도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역사적 공간의 형성과 변화, 지역주민의 생활 모습, 문화적 특성 등을 함께 조사하면서 공간과 시간, 사람의 삶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탐구할 때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관찰하며, 개

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교사는 탐구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연결되도록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역량, 비판적 사고력을 함께 기르게 된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실

제 학습활동 속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남성초등학교는 IB 교육철학을 별개의 교육체계로 접근하기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성과 학교가 자리한 지역사회의 교육적 환경에 맞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부산 중구 원도심 전체가 배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자산으로

부산 중구는 근현대사의 흔적과 다양한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다. 오랜 세월 형성된 골목길과 전통시장,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공간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부산의 변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남성초등학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교육과정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용두산공원과 부산근현대역사관, 대청동 일대의 골목길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접한 역사와 사회의 모습을 실제 공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의 현장이 된다. 학생들은 익숙한 지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공간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탐구한다. 특히 지역의 상인과 어르신, 공공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책이나 영상만으로 얻기 어려운 생생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마을은 단순히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생활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경제와 공동체, 사람들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회로 다가온다. 남성초등학교가 실천하는 마을 연계 교육은 일회성 현장체험과 구별된다.

현장을 방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질문과 자료조사, 현장 관찰, 결과 정리와 성찰, 후속 실천활동으로 이어지는 탐구과정 속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움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자신이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2학년 '마을의 공간과 사람'... 지역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다

남성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표적인 탐구활동은 '마을의 공간과 사람'을 주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용두산공원과 대청동 골목길, 부산근현대역사관 등 지역의 주요 장소를 탐방하며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상인과 어르신들을 만나 마을이 변화해 온 과정과 그 속에서 이어져 온 사람들의 삶을 듣고 기록한다.

학생들에게 오래된 골목과 건물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기억과 생활이 축적된 역사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활동은 세대 간 소통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찰한 공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한다. 서로 다른 관찰과 생각을 비교하면서 하나의 공간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적인 관찰력과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 3학년 '공동체 시스템과 문제 해결'... 지역사회의 문제를 탐구하는 어린 시민들

3학년 학생들은 '공동체 시스템과 문제 해결'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기능과 운영 원리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한다. 중구보건소와 소방서, 전통시장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기관 및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원리와 사회적 역할을 살펴본다.

학생들의 질문은 생활 속에서 출발한다. ▲우리 마을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지킬까?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전통시장을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운영체계를 이해하고, 주민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출발점이 된다.

보건소와 소방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배우고, 전통시장을 탐구하면서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의 관계를 이해한다. 또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친구들과 토의해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정답을 찾아내는 일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태도다.

학생들은 공동체가 여러 사람의 역할과 협력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

해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참여의 중요성을 배워간다. 남성초등학교의 이러한 탐구활동은 어린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초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안전·생태 지도와 전통시장 홍보... 배움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실천교육

남성초등학교 탐구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배움의 결과를 실제 생활 속 행동으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조사와 토론, 발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을 구체적인 결과물과 실천활동으로 발전시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구 안전·생태 지도'와 전통시장 홍보 브로슈어 제작활동이다.

학생들은 마을을 탐방하며 관찰한 안전 및 생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정리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에 대한 관찰과 조사, 정보의 분류와 시각화, 협력적 의사결정 등 여러 학습과정이 포함된다. 또한, 전통시장의 역사와 특성,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탐구한 뒤 시장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캠페인 활동으로 확장한다. 이는 교과 지식을 실제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동시에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는 경험이다. IB 교육에서 강조하는 '행동(Action)'은 탐구를 통해 얻은 이해를 개인의 태도 변화나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초등학교의 교육활동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작은 실천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한다. 특히, 초등교육 단계에서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토대가 될 수 있다.

■ 학교에서 가정으로, 중구에서 부산 전역으로... 배움의 확장을 이끄는 전이 학습

남성초등학교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교육적 가치는 '전이학습(Transfer of Learning)'이다. 전이학습은 특정한 상황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 사고방식을 새로운 환경이나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학교 주변 중구 원도심에서 익힌 관찰과 질문, 탐구의 방법을 자신의 가정과 생활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전이학습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다.

학교에서 골목의 역사와 공간의 변화를 탐구했던 학생은 부모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익숙한 거리와 건축물, 주민들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마을 안전을 조사한 경험은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특정한 수업시간이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배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학습경험의 확장과 더불어 가족 간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적으로 연결될 때 학생들의 배움은 더욱 폭넓은 의미를 갖는다.

남성초등학교가 지향하는 전이학습의 가치는 특정 지역의 지식을 익히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어디에서 생활하더라도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평생학습 역량을 형성하는 기초이자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이다.

■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 정답

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힘을 기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이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능력이 중요한 학습성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에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남성초등학교의 탐구 중심 교육은 미래교육의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학생들이 마을을 탐방하면서 던지는 작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 머무르지 않는다.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며 자신의 판단을 형성하는 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연결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추상적인 개념을 일반적으로 전달받기보다 실제 생활 속 문제를 통해 지식의 필

요성을 이해하고, 학습의 결과가 자신의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협력적인 탐구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경험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 중심의 역량이기도 하다. 남성초등학교의 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

■ 지역을 이해하는 교육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교육으로... 글로벌 시민역량의 토대

글로벌 미래교육은 반드시 해외의 교육환경을 경험하거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 역시 중요한 교육적 과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경험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 학생은 다른 지역과 국가의 역사와 문화도 비교하고 존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경험은 더 넓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안전·문화·공존의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남성초등학교가 강조하는 마을 중심 탐구교육은 이처럼 지역적 정체성과 세계시민 역량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일과 세계를 향해 열린 시각을 갖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공동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 이 축적될수록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남성초등학교가 추구하는 글로벌 미래교육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연결에 있다.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교육적 동행...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조건

탐구 중심 교육과 마을 연계 교육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과정 설계 역량은 물론, 가정의 이해와 참여, 지역사회의 협력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남성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은 학교 주변의 역사·문화 시설과 전통시장,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을 배움의 자원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사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의 모

습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는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탐구하면서 얻은 이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가정에서도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은 교육의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이다.

아울러 탐구 중심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질문 수준과 사고력의 변화, 협력과 성찰의 과정, 실천 활동의 지속성 등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활동의 횟수나 결과물의 규모보다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배움을 새로운 상황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평가와 환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연구와 교원 간 협력, 지역사회 교육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광민 교장의 교육 리더십... 학생의 삶에서 교육의 방향을 찾다

남성초등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주목되는 것은 학생들의 일상과 지역사회를 교육과정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이광민 교장의 교육철학이다. 이 교장이 강조하는 배움은 교사가 준비한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관찰하고 질문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배움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사고력과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길러주는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을 교육과정과 연결하는 접근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장의 교육철학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꾸준히 살피는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초등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리더십의 핵심 역시 새로운 교육방식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구성원을 존중하며, 배움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는 것. 이는 지역을 이해하는 교육을 넘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교육의 본질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황오규 기자 hog@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성장의 결실 맺다

대전교육청, 장애학생 특성·발달 수준 고려 맞춤형 방과후·돌봄 운영 사례 나눔

대전시교육청은 10월 16일 호텔 인터시티에서 관내 특수학교장, 늘봄지원실장, 방과후 업무담당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특수학교 초등방과후·돌봄 운영 사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방과후·돌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방과후·돌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정진학교 황주현 늘봄지원실장을 초청하여 타 시·도 초등방과후·돌봄 및 늘봄지원실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별 사례 나눔과 평가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2027년도부터 초등방과후·돌봄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특수학교 초등방과후·돌봄은 단순한 보호와 돌봄을 넘어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

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장애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든든한 방과후·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책 읽기 즐거움 느끼며 문해력 길러요”

대전 중앙유치원, '책이랑 소풍 가는 날' 독서행사 운영

중앙유치원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책이랑 소풍 가는 날' 독서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 실외공간에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여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책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놀이와 연계한 독서 경험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며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독서와 놀이를 연계한 '스넵코너'에서 유아들은 그림책 '고구마구마'와 '도토리 마을의 모자 가게'를 주제로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히면 골든벨을 울리는 등 즐거운 놀이를 경험했다. 이어 그림책 속 이야기를 떠올리며 관련 간

식을 맛보는 등 책의 내용을 일상 속 경험으로 확장하며 독서의 재미를 더했다. 중앙유치원 노주연 원장은 "앞으로도 유아의 흥미와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독서 환경과 문해 활동을 마련하여 유아의 독서 습관 형성과 기초 문해력 발달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학생 마음건강부터 AI 교육까지 교육현장 적용 모색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자체연구 5건·현장연구 3건 등 총 8건 성과 점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실에서 '2026년 정책연구(자체·현장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올해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자체연구 5건과 현장연구 3건 등 총 8건의 정책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과 교육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수행한 자체연구는 '마음건강관리 지원 사업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 진단 및 발전 방안 연구', '대전 AI 교육 현황과 교육정책 과제', '대전 학생의 성장 지표와 과학도시 교육·문화 경험 2024~2026 추이 분석', '대전 교사의 직무 및 학교 인식의 2024~2026 추이 분석 연구' 등 5건이다.

현장연구는 '초등 저학년 경계선지능 학생 기초학력 향상 방안 연구', '사회정서학습(SEL)의 현장 적용 방안 연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등 3건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 현안에 대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종보고회에는 과제별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진을 비롯해 대



학교수, 대전교육정책연구 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연구협의회장,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연구 내용과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의 신뢰성, 정책적 시사점과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 정책연구는 연구수행 계획 발표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로 이어지는 단계별 점검 체계와 함께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교육정책연구 지원단의 현장 자문을 병행해 연구의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 연구진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심의 의견을 반영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향후 연

구 결과를 교육청 관련 부서 및 교육현장과 공유하고, 정책 제언이 실제 대전교육 정책 수립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김선희 소장은 "올해 정책연구는 학생 마음건강, AI 교육정책, 학교도서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회정서학습 등 대전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연구의 활용과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박물관 현장체험 저학년까지 확대, 왕복 버스도 지원

한밭교육박물관, '체험학습의 날' 11월 5일~12월 4일까지 총 18회 운영



한밭교육박물관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와 학생들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박물관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김홍도의 '서당'과 '문방도' 등 조선시대 그림을 통해 당시 서당에서 쓰던 유물을 살펴보고, 서당 속 유물인 '자개 키

링'과 문자도 족자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박물관 전시 해설을 함께 들으며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상반기에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체험학습을 저학

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참여 학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왕복 버스 차량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10월 21일까지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 학교는 공정한 추첨을 거쳐 선정된 뒤 10월 23일 이후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밭교육박물관 고영규 관장은 "더 많은 학생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저학년까지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풍성한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정책의 대상’서 ‘정책의 주체’로 성장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 학생의회 제2회 정기회 개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0월 15일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서부 관내 52개 중학교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서부 중학교 학생의회' 제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발표하는 학생 주도 정책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정기회는 제1회 정기회를 통해 출범한 중학교 학생의회가 학생자치활동의 범위를 정책 참여로 확장하며, 학생이 '정책의 대상'에서 '정책의 주체'로 한 단계 성장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생의원들은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와 개선 의견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여 '나라사랑 챌린지', '학생중심 캠페인', '학생자치로 만드는 학교 행사' 등의 정책 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새롭게 발굴된 학생의회 정책 공약은 향후 학생의원 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각 소속 학교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학생의회의 정책 활동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 주도 자치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조성만 교육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배우는 가장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학생의회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교육의 변화로 연결하는 학생 주도 정책 참여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100% 참자연 그대로 100% 보리, 현미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은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행사,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참자연 그대로

부산교육청, 제107회 전국체전 고등부 선수단 확정

42개 종목, 471명 선발... 22일까지 7일간 제주도 일원서 대회 진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고등부 대표 선수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고등부 대표 선수단은 총 42개 종목, 471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선수들은 지난 8월부터 9월 까지 이어진 부산대표 선수단 선발전의 대장정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성실한 훈련 과정을 보여주며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1일 배드민턴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대회 막을 올렸으며, 16일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한다. 선수단은 12일 대회 개최지인 제주도로 이동해 현지 적응 훈련과 최종 컨디션 점검에 들어갔다.

부산 고등부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13, 은 25, 동 43 등 총 8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펜싱, 수영, 육상 등 주요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부산 학교체육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올해도 레슬링, 복싱, 수영, 육상 등 주요 종목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의 상승세를 이어 올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종목별 특성과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대회 전까지 종목별 강화훈련, 경기력 분

석, 컨디션 관리, 부상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생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리고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부산 고등부 대표 선수단은 학생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전국체육대회가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정정당당한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뜻깊은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체고, 제107회 전국체전 선수단 출정식

20개 종목 196명 학생선수 출전... 격려와 응원 속 필승 다짐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윤강)는 지난 10월 6일 오전 교내 금맥관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필승을 다짐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출정식을 개최했다.

부산체고에서는 이번 전국체전에 20개 종목 196명 학생선수가 출전한다.

이번 출정식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학교를 대표해 출전하는 학생선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동

안 땀 흘려 다진 기량을 선의의 경쟁 속에서 마음껏 발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선수단 선서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이정현 기자 ljh@

부산 강서초, 학교장 인성·진로 특강

신설학교 첫 역사 만들어 가는 학생들 자부심·책임감 함양

부산광역시 강서초등학교(교장 신동현)는 지난 9월 15일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시청각실에서 ‘강서초, 우리가 만드는 역사’ 학교장 인성·진로 특강을 실시했다.

부산강서초등학교는 올해 3월 문을 연 신설 학교로,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우리가 우리 학교의 첫 역사를 만든다”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학교 공동체의 주체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학교장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인성과 진로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른 생활 태도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강은 신동현 교장의 “10년 뒤 강서초를 어떤 학교로 기억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갈 학교의 모습과 강서초의 첫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보며, 신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겼다.

이날 특강에서는 동문과 동창의 의미, 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존중·배려·도움·함께의 가치, 장난과 폭력의 차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약속 S·T·A·R(멈추기·생각하기·행동하기·함께하기) 등이 다뤄졌다. 또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본 태도와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

누며,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바른 시민으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신동현 교장은 6학년 학생들에게 “처음이라는 자부심과 선배라는 책임을 함께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현 교장은 “강서초의 역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더 밝은 내일을 만든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인성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요기 기자 hog@

부산 사상구, 지역 교육 현안 교육기관과 협력 강화

부산교육청·북부교육지원청과 잇따라 교육 현안·환경 개선 논의

부산 사상구가 부산시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을 잇달아 만나 지역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상구는 지난 9월 21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부산시교육감 및 관계자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10월 6일에는 사상구청에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 현안의 과제와 협력 방안을 살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과의 자리에서는 사상구의 주요 교육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현안으로 AI 교육 혁신센터 설립·운영과 지역 내 폐교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됐다.

AI 교육혁신센터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기반으로, 폐교 활용 역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후 10월 6일 사상구청에서 열린 북부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에서는 보다 지역 현장에 가까운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



을 나눴다.

학교 통폐합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교육의 과제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향상, 지자체와 교육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이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특히 교육 현안은 지자체와 교육기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교육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상구는 앞으로도 부산시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에서 제기되는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부산시교육청과의 앞선 간담회에서 “사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환경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교육혁신센터 조성과 폐교 활용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부산시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사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과의 교육 현안 논의에 이어 북부교육지원청과 지역 교육 현안을 공유한 사상구의 행보가 향후 구체적인 교육사업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난희 기자 hnh@



아동복지시설 아이들과 행복한 가을 나들이

부산시학교학부모총연합회, 사랑과 존중의 가치 실천

부산시학교학부모총연합회(회장 이규희)가 아동복지시설 아이들과 함께 마산로봇랜드에서 가을 나들이를 진행하며 나눔과 동행의 의미를 나눴다.

부산시학교학부모총연합회는

지난 10월 10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마산로봇랜드에서 아동복지시설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래구의회 조진우·안선영·이정훈 의원도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하루와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통해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은 로봇랜드의 다양한 놀이시설과 볼거리를 즐기며 참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는 교육과 돌봄뿐 아니라 일상 속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모든 아이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 아래,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나들이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추억을 쌓으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부산시학교학부모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사랑과 존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난희 기자 hnh@

SAVING STORY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 세이빙스토리

당신의 숨,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산소드림 생명구조마스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소방청 소방제품 신제품 인정

산소드림 생명구조마스크는 화재 발생 시 산소발생 기능으로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조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재난안전용품입니다.

산소발생으로 호흡을 보조합니다!

화재 시, 산소발생으로 호흡기 보호!

화재 시 유독가스 차단

산소발생으로 호흡보조

두 손 자유롭게 안전 대피

가정·학교·공공시설 필수품

재난안전 인증제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소방청 [소방제품 신제품 인정]

혁신제품 조달청 지정

안전인증

SAVING STORY
부산지사
☎ 051-711-14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91, 서면동양빌 1104호

학생 아이디어로 탄생한 학교 마스코트

동성고, 학생 대상 캐릭터 공모 ‘이스타빗’ 선정… 학교 상징과 학생들의 꿈 담아

동성고등학교(교장 김태선)는 학생 대상 캐릭터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학교 공식 마스코트 ‘이스타빗(EASTARBIT)’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학교의 특색을 담은 캐릭터를 제작하고, 학교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이스타빗은 3학년 김가연 학생의 공모작을 바탕으로 최대현 교사가 원작 학생과 협의해 디자인을 보완하고 완성한 캐릭터다.

토끼를 형상화한 이스타빗은 동성고등학교가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에 개교한 점에서 착안했다. 이름은 ▲동쪽과 동성을 뜻하는 ‘East’ ▲별과 꿈을 상징하는 ‘Star’ ▲토끼와 도약을 의미하는 ‘Rabbit’을 결합해 만들었다.

디자인에는 학교 상징색인 파랑과 초록을 활용했으며, 귀 끝에 달린 별은 김가연 학생이 제안한 요소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표현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별, 동성의 빛’이라는 슬로건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키우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동성고등학교는 앞으로 이스타빗을 학교 안내문과 행사 포스터, 수업 자료, 홍보 물품 등에 활용해 학교의 특색을 알리고 구성원 간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태선 동성고 교장은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교사의 협력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탄생해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교육청, 우리 아이 몸과 마음 근육 키운다

영유아 교사 역량강화 2기 연수…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익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5일 환경교육센터 상생마당에서 어린이집 교사 20명과 유치원 교사 14명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2026. 영유아 교사 역량강화 연수’ 2기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함께 성장하는 교사’를 주제로 영유아의 신체활동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체활동 중심의 ‘몸 근육 키우기’와 정서적 상호작용

중심의 ‘마음 근육 키우기’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날 2기 연수에서는 허미애 한 국유아교육협회 회장이 ‘영유아 마음 근육 키우기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영유아 마음 근육 키우기를 위한 교사 지원의 기초와 필요성 ▲교사인 나의 마음 돌아보기 ▲영유아 마음 건강 이해하기 ▲영유아 마음 근육을 키우는 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영유아의 감정을 이해하며 정서적 안정을 돕는 ‘두드리기, 보듬어주기, 세워주기’ 등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법을 익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문화원에서 진행된 1기 연수에서는 박규림

한국힐링아카데미협회 교육이사가 ‘영유아 몸 근육 키우기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를 주제로 신체 소도구를 활용한 활동과 명상, 심인불 체험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신체활동 지원과 교사의 자기 돌봄 방법을 안내했다.

김귀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체활동과 마음 건강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한림디자인고, 경력개발 로드맵 경진대회 4명 수상

우수상 1명·장려상 3명…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개발 도와

한림디자인고등학교(교장 허영규)는 16일 세명대학교가 주관한 ‘2026 경력개발 로드맵&IAP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학생 4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세명대학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추진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분석하고 진로 목표에 따른 경력개발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경진대회다.

지난달 28일 공모를 마감한 이번 대회에서 한림디자인고는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등 총 4명이 수

상해 전체 수상자 10명 중 4명을 배출했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쌓은 전공 역량과 자격증 취득 경험,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분석하고 진학과 취업 목표에 맞는 경력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한림디자인고는 전공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 활동을 연계한 맞춤형 진로·취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수상 수상자인 뷰티디자인과 3학년 박서연 학생은 “국가자격증

4개를 취득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었고, 앞으로도 취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허영규 한림디자인고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취업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꽃동네학교, 행복 AI 챌린지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장애청소년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 전국서 학생 110명·지도교사 44명 참가

꽃동네학교(교장 김봉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6 행복 AI 챌린지’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생각을 잇고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장애청소년 대상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로, 전국에서 학생 110명과 지도교사 44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와 영상 제작, 정보통신기술(ICT) 종합 미션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디지털 활용 역량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겨뤘다.

꽃동네학교에서는 홍주영(고2)·이정민(전공과 2학년) 학생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비전챌린지’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은서(중3)·이지환(고1) 학생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원하는 영상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글로 입력해 영상을 제작하는 ‘희망챌린지’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꽃동네학교는 디지털 선도학교로서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며 정보 활용 능력과 창의적 표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김봉수 꽃동네학교장은 “학생들이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며 쌓아온 역량을 전국대회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드론농구(DRONE BASKETBALL)



세계드론스포츠연맹회

하늘 위의 드론스포츠 "드론 농구"

DRONE BASKETBALL: A SPORT IN THE SKY

경기규정 (RULE)

● **팀 구성: 3명의 선수**

- 각 팀 3명으로 구성
- 실시간 동시 조종
- 역할 분담 전략 중요

● **경기 시간: 총 3쿼터**

- 쿼터당 2분 진행
- 쿼터 사이 2분 휴식
- 작전타임 90초

● **득점 인정 조건**

- 드론이 골대 1/2 이상 통과
-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야 함

● **자동득점 시스템**

- 정확한 점수 측정
- 실시간 스코어 업데이트
- 공정성 확보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2025. 8. 9 - 8. 10
장소 : 청주 OSCO 2 HALL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8월 9-10일 | 장소 : 청주 OSCO 2 HALL | 후원 : SK, KOSF, KOSFA, KOSG, KOSI, KOSJ, KOSK, KOSL, KOSM, KOSN, KOSO, KOSP, KOSQ, KOSR, KOSU, KOSV, KOSW, KOSX, KOSY, KOSZ, KOSAA, KOSBB, KOSCC, KOSDD, KOSFF, KOSGG, KOSHH, KOSII, KOSJJ, KOSKK, KOSLL, KOSMM, KOSNN, KOSOO, KOSPP, KOSRR, KOSSS, KOSUU, KOSVV, KOSWW, KOSXX, KOSYY, KOSZZ, KOSAAA, KOSBBB, KOSCCC, KOSDDD, KOSEEE, KOSFFF, KOSGGG, KOSHHH, KOSIII, KOSJJJ, KOSKKK, KOSLLL, KOSMMM, KOSNNN, KOSOOO, KOSPPP, KOSRRR, KOSSSS, KOSUUU, KOSVVV, KOSWWW, KOSXXX, KOSYYY, KOSZZZ, KOSAAAA, KOSBBBB, KOSCCCC, KOSDDDD, KOSEEEE, KOSFFFF, KOSGGGG, KOSHHHH, KOSIIII, KOSJJJJ, KOSKKKK, KOSLLLL, KOSMMMM, KOSNNNN, KOSOOOO, KOSPPPP, KOSRRRR, KOSSSSS, KOSUUUU, KOSVVVV, KOSWWWW, KOSXXXX, KOSYYYY, KOSZZZZ, KOSAAAAA, KOSBBBBB, KOSCCCCC, KOSDDDDD, KOSEEEEE, KOSFFFFF, KOSGGGGG, KOSHHHHH, KOSIIIII, KOSJJJJJ, KOSKKKKK, KOSLLLLL, KOSMMMMM, KOSNNNNN, KOSOOOOO, KOSPPPPP, KOSRRRRR, KOSSSSSS, KOSUUUUU, KOSVVVVV, KOSWWWWW, KOSXXXXX, KOSYYYYY, KOSZZZZZ, KOSAAAAA, KOSBBBBB, KOSCCCCC, KOSDDDDD, KOSEEEEE, KOSFFFFF, KOSGGGGG, KOSHHHHH, KOSIIIII, KOSJJJJJ, KOSKKKKK, KOSLLLLL, KOSMMMMM, KOSNNNNN, KOSOOOOO, KOSPPPPP, KOSRRRRR, KOSSSSSS, KOSUUUUU, KOSVVVVV, KOSWWWWW, KOSXXXXX, KOSYYYYY, KOSZZZZZ

세계드론스포츠연맹회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전화 +82(10)-5080-9116, -
이메일 : wdsf9116@naver.com)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rone_sports

충북과학고, 인문학적 소양 넓힌다

1학년 학생 56명 옥천·청주 일원서 문학역사기행



충북과학고등학교(교장 정관숙)는 15일 1학년 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옥천과 청주 일원에서 충북 지역 문학과 독립운동가의 삶과 발자취를 탐구하는 ‘2026. 문학역사기행’을 운영했다.

이번 문학역사기행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문학과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지역 인물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학생들은 오전에 옥천 정지용문학관과 생가를 방문해 충북을 대표하는 시인 정지용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오후에는 청주 순병희 선생 유지에서 직접 체험하며 인문학적

아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활동을 탐구했다. 현장 해설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한국사 수업에서 배운 독립운동의 역사와 연결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과학고는 과학·수학·정보 분야의 탐구 역량과 함께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어디서나 운동장’과 연계한 신체활동, ‘언제나 책방’을 통한 독서활동을 비롯해 매년 문학답사와 문학역사기행을 추진하며 교과 간 배움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정관숙 충북과학고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의 문학과 역사를 직접 만나며 인물의 삶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키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과 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청주공고 동문의 아낌없는 모교 사랑

임현학 회장 장학금 1천만 원·도서 200권 기탁

청주공업고등학교(교장 서중덕)는 15일 제24회 동문인 제이앤스데이치(주) 임현학 회장이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 1,000만 원과 도서 200권을 기탁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교 후배들의 학

업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사회에 진출한 선배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현학 회장은 장학금 1,000만 원과 도서 200권을 학교에 기탁하며 후배들의 배움과 성장을 응원

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활동 지원에 활용되며, 도서는 독서 활동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과 미래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배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건넸다.

유기성 기자 ygs@

폐교 활용 교육·문화·공동체 거점으로

전북교육청, 군산·정읍·무주·고창·부안 등 5개 지역 폐교 10개교 공모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폐교 활용모형을 발굴하고,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폐교 활용(대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폐교 활용모형을 개발하고, 폐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군산·정읍·무주·고창·부안 등 5개 지역의 폐교 10개교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아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폐교를

2년간 무상으로 대부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다. 주민단체는 공모일 현재 해당 폐교의 폐교 당시 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성인 주민이 50% 이상 참여한 조합이나 마을회 등의 공동체여야 한다.

주요 활용 분야는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등 소득증대 시설이나 평생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시설 조성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폐교를 단순

히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직접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공동체 거점으로 재생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사업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사업 대상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11월 서류심사와 12월 발표심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

월 폐교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했으며, 9월부터는 폐교 대부분을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비법인사단 등의 폐교 활용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폐교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폐교활용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천호성 교육감은 “폐교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익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폐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최교진 장관, 전북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현장 방문

원광대병원 병원형 위센터·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현황 살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군산 동원중을 방문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전북을 찾았다. 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및 위기학생 대응 체계 우수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병원형 위(Wee)센터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교와 전문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원광대학교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학교 상담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 전문치료병동과 병원형 위(Wee)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병원형 위(Wee)센터 및 긴급지원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교육청과 병원,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가 참여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과 협력해



2021년부터 병원형 위(Wee)센터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형 위(Wee)센터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교육 등을 지원하는 교육·치료 복합지원기관이다.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병원형 위(Wee)센터와 긴급지원팀을 연계 운영하며 학교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의료 전문성을 결합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전문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 일상과 학교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장관은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의료기관, 가정 등 다양한 주체가 긴밀하게 연계·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기학생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지원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라며 “마음이 아픈 학생이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미래 우주과학자 꿈 키워요”

전북교육청, 나사(NASA) 글로벌 캠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미래 우주과학 분야를 이끌 글로벌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헌츠빌과 워싱턴 D.C. 일원에서 '2026년 나사(NASA) 글로벌 캠프'를 운영한다.

이 캠프에는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 16명이 참여해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 교육·연구기관에서 체험·탐구활동을 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른다.

캠프의 핵심은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위치한 U.S. 스페이스&

로켓센터에서 진행되는 ‘스페이스 아카데미’다. 이 센터는 나사 마셜 우주비행센터의 공식 방문자센터이자 청소년을 위한 우주과학 체험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학생들은 스페이스 아카데미에서 우주 임무 시뮬레이션에 비롯해 로봇공학, 항공우주과학 등 다양한 체험·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실제 우주탐사 상황을 가정한 팀별 임무를 수행하며 과학 원리를 적용하고, 동료들과 협

력에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는다.

이번 캠프는 우주과학 체험·탐구활동에서 항공우주기술과 자연과학 분야의 심화 탐방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을 실제 체험활동과 연결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공계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김홍태 기자 kht@

교육공동체 구성원 서로 존중받고 함께 빛나게

전북교육청, 학교 관리자 인권리더십 역량강화… 인권 친화 학교 문화 조성



전북교육인권센터(센터장 김진덕)는 15~16일 이틀간 센터 2층 교육실에서 도내 유초중고 교(원)감 3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2기 학교 관리자 인권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 연수는 다각적인 인권 지식 습득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통해 학교 관리자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권리와 책무가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깊이를 더했다. 첫 날인 15일에는 조병중 교수(우석대 교양대학장)가 ‘역사 속에 나타난 인권’을 주제로 동서양 역사와 인문학적 맥락에서 본 인권의 가치를 조명하고, 조효제 교수(성공회대 명예교수)가 ‘기후위기의 시

대, 인권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기후변화와 인권, 교육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16일에는 박홍진 교수(원광대 인권센터)가 ‘사람을 위한 법, 인권을 위한 생각’을 통해 법과 인권의 법적·절차적 상호작용을 다루고, 김창주 전주문화재단 팀장이 ‘인권과 문화’를 주제로 생활 속 인권 문화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김진덕 센터장은 “인권은 ‘관심’이고, ‘관심’은 곧 ‘사랑’이다. 학교 관리자로서 역사·기후·법·문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권 감수성을 넓히는 것은 존중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 핵심 토대”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받고 함께 빛나는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이 현장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교육정책 성과·실효성 체계적 검증

전북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추진계획 본격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교육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2026년 정책 유효성 검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정책 유효성 검증’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책무성을 높이고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며, 최초 검증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사업 가운데 최종예산액 기준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주요 정책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월 ‘정

책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1~12월 중 10대 핵심과제와 교육감 공약사업, 주요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적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주요 정책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와 실적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후 사업 시행연도 3년이 경과하면 ‘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부적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부적합 의견이 있는 경우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다.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는 △정책 목적 달성 여부 △추진 성과와 현장 시행 필요성 △행정적·예산적 낭비요인 △교육환경 및 교육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의 유지·폐지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폐지 의견이 있는 정책

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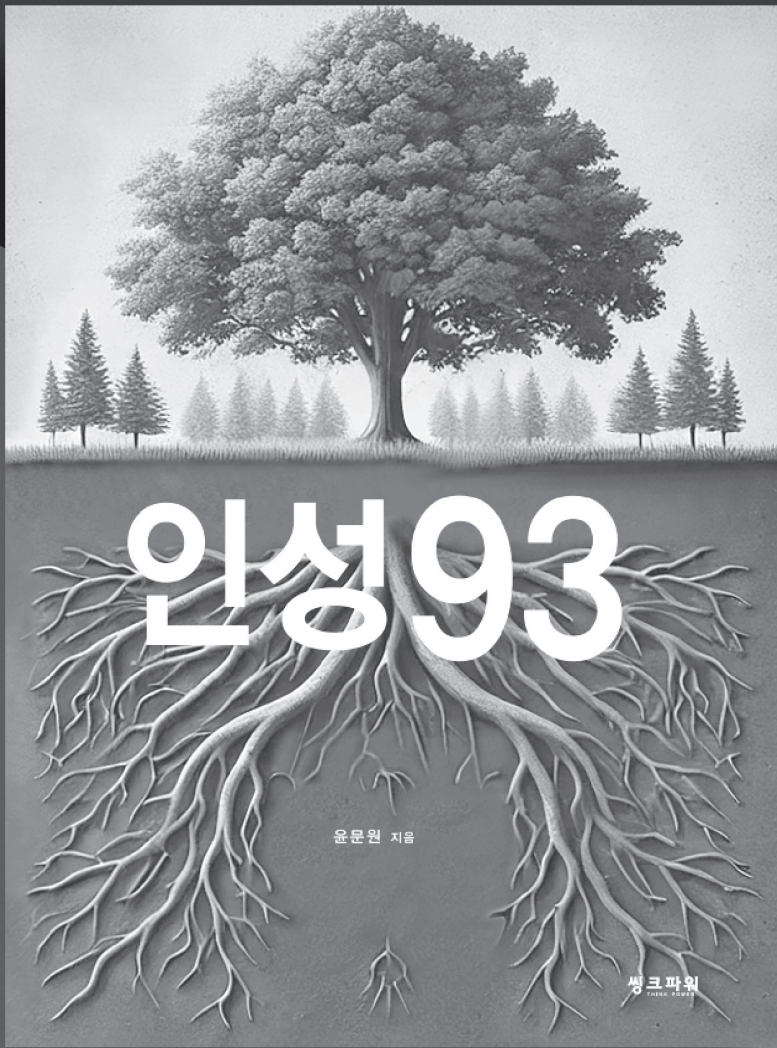
특히 전북교육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정책 관리·평가 제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도 이번 계획을 참고해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자체평가나 성과관리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제도에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관의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정태식 정책기획과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은 사업 시행 이후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제도”라며 “기존 정책사업 정비와 성과관리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쌤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방,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럽

변종 폭력 ‘야차룰’에 대한 교육적 대응책

“야차룰”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학교 안에서 활개 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오늘날 학교 현장은 갈수록 가관이 다. 본래의 기능을 잃고 끔찍한 변종 폭력의 실험장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야차룰’은 우리 교육 공동체가 직면한 매우 충격적인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은어는,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 사전에 면밀하게 기획되고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적 야만성을 띠고 있다. 교실의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고개를 든 이 기괴한 폭력의 실태를 냉정히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먼저 ‘야차룰’의 어원부터 살펴보자. ‘야차(夜叉)’는 본래 산스크리트어 ‘야크샤(Yakṣa)’에서 유래한 말로, 불교 신

화나 민속에서 사람을 해치거나 두려움을 주는 흉폭하고 사나운 귀신(또는 괴물)을 뜻한다. 이로부터 파생되어, 인터넷 격투 콘텐츠나 대중문화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싸우는 격투 방식’을 일컫는 은어로 쓰이게 되었다. 여기에 ‘규칙(Rule)’이 결합하여 ‘제한 없이 맨몸으로 붙는 싸움 규칙’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난 배경은 유튜브 및 격투 콘텐츠의 모방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종합격투기 콘텐츠 등에서 보호장구 없이 거칠게 싸우는 모습이 밈(Meme)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이를 모방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학교 폭력 처벌 회피의 목적으로 생겨난 변종 수법으로

아이들이 고안해 낸 알팍한 꾀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교활한 것은 철저하게 ‘합의된 결투’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점이다. 당사자 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교실 구석, 화장실, 학교 인근 공터 등 교사의 눈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맨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하도록 강요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싸움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아이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나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고, 심지어 이를 흥행 콘텐츠처럼 소비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변종 폭력이 일상화된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사법적 눈속임과 솜방망이 처벌이다. 가해 학생들은 “우리끼리 합의하여 싸운 것”이라며 학교 폭력

의 범주를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신종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의 10명 중 8명가량은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치고 있다. 학생부에 기록조차 남지 않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아이들에게 “폭력은 잠시 스쳐 가는 유희일 뿐”이라는 비교육적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의 실종과 방관의 문화다. 경쟁 지상주의 교육 속에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은 퇴화하고, 자각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진 청소년 문화가 ‘구경꾼’과 ‘방관자’를 양산하며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야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담 형태별 처벌의 세분화 및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합의된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꾀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 행사는 물론이고, 싸움을 주선하거나 관전하며 촬영하고 유포한 모든 방관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2차 가해 방지 및 플랫폼 강화 시스템이다. 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즉시 학교와 경찰이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 셋째, 관계 회복 중심의 인성 교육과 신고 시스템의 개혁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변종 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이 익명으로 두려움 없이 고발할 수 있는 신속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교실 내에서 타인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인성·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야차룰’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학교 안에서 활개 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아이들의 주먹질을 방관하고 가벼운 처벌로 눈감아주는 것은 학교가 폭력의 공범을 양산하는 것과 같다. 이제 차가운 방관과 솜방망이 처벌의 그늘을 거두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법과 원칙,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한 공감의 교육으로 교실을 정화할 때 비로소 학교는 다시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인곡(仁谷) 전재학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 [월간교육월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이수연의 고용정책 칼럼

일할 기회에는 나이가 없다

모두를 위한 고용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사회

일자리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며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고용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들은 여전히 기업과 사회에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업 역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숙련된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렵고, 채용 이후에도 업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시니어의 경험과 기업의 수요를 연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고용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시니어를 비롯한 경험 있는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참여자의 경력과 역량을 분석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니어의 경험이 새로운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성장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고용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과 중장년, 시니어는 물론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포용적인 고용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람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참여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기업 역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로 채용하면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연결의 시작이다. 앞으로의 고용정책은 취

업몰이라는 숫자를 넘어 다양한 계층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사람의 경험과 역량을 나이로 판단하지 않고, 경험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사회가 더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

좋은 일자리는 특정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때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한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계층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고용서비스의 가치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포용적 일터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ESG 기반 고용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수연

-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 (주)채움HRD 대표이사
- ◇ 고용·교육정책 및 HRD 분야 전문가
- ◇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위원
- ◇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지원위원회 위원
-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문가위원

최 윤 용 의

100세 칼럼

암 수술부터 척추·관절 수술까지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는 ‘조기 재활(ERAS)’, 침구 치료의 결합으로 완성하다

1. 단순 침상 안정이 아닌 생리적 항상성의 재건, 수술 후 재활의 개념 - 많은 환자가 종양을 절제하거나 손상된 관절과 척추를 교정하는 수술이 무사히 끝나면 치료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술의 종료는 또 다른 치열한 생리적 회복 과정인 ‘수술 후 재활(Postoperative rehabilitation)’의 출발점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수술 후 요양 개념은 수술로 허약해진 신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엄격한 장기 금식, 각종 배액관과 도뇨관의 장기간 유지, 과도한 수액 투여 및 절대적인 침상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케렛(Kehlet) 교수가 주창한 이래 현대 수술 후 관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수술 후 회복 촉진(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이하 ERAS)’ 패러다임은 수술이 인체에 가하는 복합적인 외상 스트레스 반응을 조기에 능동적으로 제어하여 수술 전의 신체 기능과 대사 항상성을 신속히 되찾는 통합 재활 과정을 수술 후 재활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수술이라는 물리적 침입은 인체 내부에 결코 가볍지 않은 신경·내분비·면역학적 폭풍을 일으킵니다. 복부나 근골격계 수술이 시작되는 1단계(신경원성 단계)에서 피부와 조직 절개는 기계수용체와 통각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하여 척수 억제 반사와 교감신경계(아드레날린성 경로)를 과도하게 활성화하고, 뇌의 고립모핵과 시상하부 실패핵을 자극해 부신피질자극호르몬분비인자를 발출시킴으로써 위장관 운동을 즉각 마비시킵니다. 이어지는 2단계(염증성 단계)에서는 외과적 조작으로 인해 조직 내 비만세포가 탈립되고 근육층에 상주하

는 M1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중앙 과사인자, 인터루킨-1베타, 인터루킨-6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유도성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래 산화질소, 사이클로옥시게나제-2 유래 프로스타글란딘이 대량 방출되어 장관 평활근 수축력을 직접 떨어뜨리고 전신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 근육 위축을 유발합니다.

2. 마약성 진통제와 장마비의 딜레마, 수술 후 재활의 필요성과 최신 논의 - 수술 기법이 개복술에서 복강경 및 로봇을 활용한 최소침습수술로 고도화되고 ERAS 프로토콜이 도입되면서 평균 재원 기간이 1.88일 단축되고 합병증 위험이 29%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재활의 난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부 수술 환자의 약 19%에서 발생하는 ‘수술 후 위장관 기능장애’와 대장직장 수술 환자의 10~30%가 겪는 ‘수술 후 장마비(postoperative ileus)’는 복부 팽만, 가스 및 대변 배출 지연, 경구 섭취 불내성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장 유래 감염과 패혈증, 다장기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30%, 고위험군의 60~80%는 수술 후 구역 및 구토를 겪으며, 이는 복압 상승으로 인한 장상 열개, 출혈, 흡인성 폐렴 위험을 높입니다. 정형외과와 척추 수술 영역의 재활 문제도 심각하여,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는 수술 1개월 후 대퇴사두근 기능이 20~25% 감소하고 1년 후에도 회복 속도가 18%, 계단 오르기 속도가 51% 저하되어 약 15~20%가 재활 결과에 불만족을 호소하며, 퇴행성 요추 질환 수술 환자의 10~75%는 신경근 건인

손상에 따른 난치성 잔여 하지 저림과 근육 강직을 겪습니다.

가장 큰 임상적 딜레마는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투여하는 약물 자체가 오히려 재활과 장기 기능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체 수술의 36.5% 이상, 주요 암 수술의 95% 이상에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opioids)는 장 신경계에 분포한 μ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비추진성 수축을 늘리고 수분·전해질 분비를 억제하며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해 심각한 변비와 수술 후 장마비, 구역·구토를 촉발합니다. 더욱이 수술을 계기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접한 환자의 약 6%가 수술 90일 이후에도 약물을 끊지 못하는 지속적 오피오이드 사용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 보건 위기로 대두되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는 위장관 출혈과 간·신장 독성 위험이 있고, 가바펜티노이드 계열 약물은 슬허 효능 억제 우려로 활용이 위축되고 있으며, 장 회복을 돕기 위해 시도되던 정맥 리도카인 주입술 역시 최근 영국 27개 병원 다기관 임상시험(ALLEGRO trial)에서 위장관 회복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항구토제 단독 투여만으로는 수술 후 오심과 구역 전체 발생률을 유의하게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학계에서는 ERAS의 빈틈을 메우고 마약성 진통제 의존도를 낮추며 다장기 기능을 보호하는 비약물적 전략의 일환으로 ‘수술 전후 침구치료’의 결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3. 신경·면역·근막을 조율하는 침구 재활의 현대 과학적 작용기전 - 신경생

리학, 면역학 및 생체역학 성과를 반영한 각종 연구들이 침과 침전기자극술(electroacupuncture), 뜸 치료가 단순한 국소 자극을 넘어 말초·척수·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근막 연결망을 입체적으로 조절하여 수술 후 재활을 촉진하는 정교한 기전을 규명해 내고 있습니다.

첫째, ‘미주신경-콜린성 항염증 경로(cholinergic anti-inflammatory pathway)’와 ‘뇌-장 축(brain-gut axis)’의 활성화입니다. 족삼리(ST36), 상거허(ST37), 내관(PC6) 등 주요 경혈에 침이나 침전기자극을 자극을 가하면 체성감각-자율신경 반사를 통해 과항진된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미주신경 및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미주신경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은 장 근육층 대식세포 표면의 알파7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 내 JAK2/STAT3 신호전달 경로를 가동함으로써, TNF- α , IL-1 β , IL-6, 골수형성세포특사체(MPO) 등 염증 매개체의 방출과 복강 내 조직 유착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침전기자극술은 미주신경-부신 축을 자극해 카테콜아민 분비와 말초 도파민 D1 수용체 작용을 통해 전신 염증을 제어하고, 장 신경계의 카탈 간질세포(ICC)와 콜린성 신경원을 북구하며 혈관활성장펩티드, 물질 P(Substance P), 가스트린, 모틸린 분비를 정상화하여 장관 연동운동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내관혈 자극은 소뇌와 뇌섬엽(insula) 사이의 신경 연결망 및 시상하부 베타-엔도르핀(β -endorphin) 방출을 조절하여 구토 중추를 안정시키고, 귀의 경혈 자극은 위장관을 지배하는 유일한 표재성 분지인 미주신경 이

개분지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둘째, 말초·척수·중추를 아우르는 3단계 다중 진통 및 신경 재생 기전입니다. 말초 수준에서 침 자극은 A δ 및 C 신경섬유를 활성화하고 국소 아데노신 방출을 유도해 A1 퓨린 수용체를 통한 통각 전달을 직접 차단하며, 면역세포를 조절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항염증성(IL-4, IL-10, TGF- β) 상태로 전환합니다. 척수 후각 수준에서는 엔케팔린 매개 분절성 진통을 유도하고, 케모카인 축(CCL2/CCR2 및 CCL3/CCR5)을 하향 조절하여 만성 통증을 고착화하는 미세아교세포(microglia)와 성상교세포(astrocytes)의 과활성화를 차단합니다. 나아가 상위 뇌 수준에서는 중뇌 수도관주위회색질과 연수 복내측부의 칸나비노이드 CB1 수용체 매개 GABA성 신경 억제를 통해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가동하며, 침전기자극을 주파수에 따라 2 Hz에서는 엔케팔린과 베타-엔도르핀을, 100 Hz에서는 다이노르핀을 선택적으로 분비시켜 통증을 제어하고 신경줄기세포 증식 및 재수초화(remyelination)를 촉진합니다.

셋째, 생체의 구조적 안정 회복과 근막 이완 기전입니다. 수술 후 조직 손상과 염증은 근섬유아세포의 비정상적 수축과 세포외기질(ECM)의 병리적 재구성을 유발하여 마치 갇힌듯한 굳어지는 ‘근막 갇힘’ 상태를 형성함으로써 근육 강직과 신경 말단 압박 통증을 지속시킵니다. 침 치료의 물리적 자극은 경피적 미세 근막절개술처럼 작용하여 근막의 전단 탄성률과 미세 유착을 해소하고 생체역학적 장력 균형을 복원함으로써, 환자가 조기에 재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소화기암부터 척추·관절 수술까지, 현대과학적 임상 연구로 입증된 침치료 활용 수술 후 재활의 근거 - 침구 치료의 수술 후 재활 효능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에 게재된 대규모 다

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과 네트워크 메타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장관암 및 복부 수술 후 장 기능 회복 효과입니다. 소화기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Gastroenterology』(2025)에 발표된 중국 7개 대학병원 585명 대상 다기관 3군 임상시험에 따르면, 복강경 위암 절제술 후 내관·족삼리·상거허에 총 4회 침전기자극술 치료를 시행한 군은 첫 가스 배출 시간이 평균 69.46시간으로, 가짜 침전기자극술군(82.08시간)보다 12.96시간, 표준 치료 단독군(93.59시간)보다 무려 24.46시간 단축되어 장마비 기간을 만 하루 이상 앞당겼습니다. 또한 첫 배변 시간(-24.66시간), 고형식 섭취 내성 시간(-122.18시간), 독립 보행 시간(-17.93시간)을 모두 단축하고 지속성 장마비 발생률을 66.15%에서 39.69%로 낮추었으며, 수술 4주 후까지 피로·불면·통증·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의하게 높였습니다. 외과학 분야의 해외 저명 학술지 『JAMA Surgery』(2023)에 실린 대장암 복강경 수술 환자 248명 대상 다기관 임상시험 역시 엄격한 ERAS 프로토콜 하에서도 중환·천추·족삼리·상거허 침전기자극술 치료가 가짜 침치료 대비 첫 배변 시간(76.4시간 vs 90.0시간)과 첫 가스 배출 시간(44.3시간 vs 58.9시간)을 유의하게 앞당기고 지속성 장마비 발생 위험을 절반(10% vs 20%)으로 감소시킴을 입증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최윤용

-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 (주)옴생애틀 대표이사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APEC 2025 정상회의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옥외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성능인증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인증 산업융합혁신제품 우수발명품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KSYS

‘최첨단 SMT라인 보유’
미세피치 전광판 생산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친환경
1등급
GOOD
ELECTRICITY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 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NOVA STAR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SMT 라인



아웃도어 라인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학교 설치 레퍼런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울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삼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홍성 홍북초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KSYS

대표전화

1600 - 6187

[전국 및 글로벌 지사 · 공장 · 물류]

부 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 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대 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니처 749호

광 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 주 | 제주 서문로 33

미 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 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